

공지사항

영축명

- 홍야고보 신부님 영명축일: 7월 25일(금)
- 축하식: 7월 20일(주일) 교중 미사 중
-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자 영성체 - 7월 16일(수)

Holy Family 모임

- 대상: 유아부터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
- 일시: 7월 27일(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기념관 가브리엘방
- 참가신청: Holy Family 담당자, 사무실로 접수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신청접수

- 교육기간: 8월 1일 - 9월 5일(6주)
- 접수기간: 7월 13일(주일)까지
- 신청접수: 지구 협의회, 사무실

청년 성서 연수

- 연수장소: Edmund Rice Retreat Centre
- **5차 창세기연수**
- 주제: “야훼이레” (창세22,14)
- 일시: 7월 17일(목) - 20일(주일)
- **6차 탈출기 연수**
- 주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탈출 3,12)
- 일시: 7월 25일(금) - 27일(주일)
- **색초 수집**
- 청년성서연수에 쓰일 색초를 수집합니다.
- 장소: 사무실 앞 상자,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꾸리아 - 7월 19일(토) 7:30pm 미사 후

혼인교리 강좌

- 일시: 8월 17일(주일) 12:30pm - 6:00pm, 미카엘방
- 대상: 내년 2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커플
- 접수: 8월 3일(주일)까지 사무실

개인성경필사 - 본당 공동체 설립 40주년 기념

- 2016년 11월 07일 본당 공동체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개인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 완필자분들께는 교황님의 축복장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 개인성경필사 마감일: 2016년 7월 31일
- 필사노트: 개인 노트 혹은 성물부에서 구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신설 및 이용 안내

- 기념관 옆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속으로 라자로관 옆 공터 주차장에 추가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준비하였으니, 교우 여러분의 사용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체모임

- 쌍두스 성가대: 7월 13일(주일)
- 전례해설단: 7월 13일(주일)
- 울뜨레아: 7월 13일(주일)
- 연령회: 7월 13일(주일)
- 한화회: 7월 19일(토) 9:30am 미사 후
- 요한회: 7월 20일(주일)
- 안나회: 7월 20일(주일)
- 독서단: 7월 20일(주일)
- 글로리아 성가대 피정: 7월 19일(토) - 20일(주일)
- 반주자모임: 7월 20일(주일)

금주 성경 읽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토빗 12-14	유딧 1-6	유딧 7-12	유딧 13-16	에스 1-5	에스 6-10	1마카 1-2

오늘의 중식 메뉴: 콩나물 우거지 된장국(해외봉사단)

우리들의 정성

2차헌금: \$1,211.10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17,086.85	\$ 470	\$ -	\$ 106,482.24	\$ 17,556.85	\$ 38,519.54	\$85,519.55

전입 / 전출

전입교우:

주일 봉사

날짜	13,20/7	27/7,3/8	10,17/8	24,31/8
지구	10지구	09지구	12지구	11지구
전례,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성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자 대축일 미사 참례수: 1,601명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7월 13일

주 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사 무 실: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사 제 관: 8756 3330(임요셉신부), 8756 3331(전스테파노신부)
8756 3332(노미카엘신부), 9558 3498(홍야고보신부)
수 녀 원: 8756 3336(좌 인노첸시아 원장수녀, 최디아나 수녀
윤 바오로 수녀)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목, 금: 9:30am 7:30pm	9:30am(매 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10:30am(교중) 5:00pm(City) 5:30pm(영어) 7:30pm

연중 제15주일

제1독서: 이사 55,10-11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제2독서: 로마 8,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3,1-23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전례성가: 입당: 21 / 봉헌: 513, 511 / 성체: 506, 504, 501 / 파견: 34

화 답 송:



평일미사(독서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14일(월)	이사 1,10-17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태 10,34-11,1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15일(화)	이사 7,1-9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마태 11,20-24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뺏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16일(수)	이사 10,5-7.13-16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마태 11,25-27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17일(목)	이사 26,7-9.12.16-19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라.	마태 11,28-30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18일(금)	이사 38,1-6.21-22.7-8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마태 12,1-8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19일(토)	미카 2,1-5	주님,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마태 12,14-21	주님, 당신 얼굴 이 중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복음 나눔

“연중 제16주 복음나눔”

연중 제 16주일

마태 13,1-23(7월 13일)

묵상 성구. 질문(각자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선택하여 묵상하고 나눔을 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

1. 내가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뿌려준 사례를 이야기해 봅시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마태 13,32)

2.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마태 13,33)

3. 어느 날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 행복감을 느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 13,43)

4. 나는 어느 땅에 뿌려진 씨앗이며,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어떻게 보고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 외 성경 구절

위 성경 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이 다가옵니까(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강하람 니콜라스
강하늬 케서린
권경란
권영해 베네딕토
고영서 프란시스
고일순
김경숙 아네스
김금선 마리아
김구준 스테파노
김도경 리엔
김명훈 베드로
김성년 아네스
김상준 안드레아
김연심 프란체스카
김영남 데레사

김영복 세실리아
김영환 아우구스티노
김윤배 데레사
김윤옥
김진수 베아타
김태균
김태영
김환영 마르타
김창례
나정미 제니퍼
노정옥 엘리사벳
노수진 베로니카
박인희 베로니카
박혜영 말가리다
배범근 요셉

배승현
백호현
베로니카상은 크리스티
사기주 유스티나
신병각 가브리엘
신순임 헤레나
신형철 리디아
안충길 빠뜨리시오
어수례 마리아
오태선 식스토
월리엄 헨리크리스티
이규하 아나시오
이건운 안토니오
이래교 안젤라
이미나 아네스

이성주 세실리아
이세린
이상민 크리스티나
이 세라
이애린
이애자 오티리아
이응수
이영민
이은정 오티리아
이응효
이재욱 헬레나
이정수
이종운 라우렌시오
이제화 안나
이혜영 프란체스카

유기현
유정자 데레사
윤창현 마태오
우영철 베드로
은동현 유스티노
장춘자
전순자 데레사
전연교 유스티나
전인혜 줄리아
전주현 에디타
정계숙 보나
정명화
정미화 루시아
정영희 쟈마
정현욱

정현주 까리파스
조규정 이레네오
조 에스더
주효지 요한나
주효정 요세피나
지미자 소화데레사
최신우
최춘자 안나
최혜경
한광수 요한
한 풀
현희순 데레사
황선용 크리스티나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례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54]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 종말 사건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는 고백은 종말에 대한 믿음을 표명이다.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므로 종말의 믿음도 반드시 신앙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신앙이 결핍되면, 목적의식 없는 삶처럼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한다. 내세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현세를 온전히 무시하며 현세 책임을 망각하는 도피주의에 빠진다면, 반대로 내세를 망각하는 신앙은 현실에만 집착하는 현세주의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균형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종말관을 지녀야 한다.

육신 부활은 종말 사건들 중 하나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사건은 ‘주님의 재림’ 이다.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모든 이가 육신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이나 멸망이냐가 최종 판가름 난다는 것이 종말신앙의 내용이다. 마지막 날은 언제 닥쳐 올 지, 절대 모르는 사항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며 예수께서 종말의 개시를 선언하셨고, 바로 역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때의 충만’ 으로 표현하였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보내셨다.” (갈라 4,4) 종말은 ‘충만한 때’ 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중간시기’ 이다.

육신 부활은 ‘죽은 이들의 부활’ 이라는 성경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죽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육신 부활하리라는 말이다. 바로로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 예수 부활의 전제이고, 예수 부활은 죽은 이들 부활의 첫 열매이며, 동시에 그 확증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유형의 부활 사이의 관계를 이같이 설명한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 나셨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이다.” (1코린 15,16.20.23)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이들 부활의 확고한 보증이고 그 원형이자 모델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 부활하셨으므로 그분 안에서 죽은 이들도 육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흔적이 선명한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고 나그네 차림으로 동행하기도 하셨다. 그분의 전 인격체, 영혼과 육신 전체가 하느님의 세계 안으로 되살아나서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방식’ 으로 나타나셨다. 죽은 신앙인들도 마지막 날에 ‘육신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다.

심판과 부활은 구원 과정의 마무리이다. 창조가 하느님 홀로 할 수 있는 행위인 것과 같이 부활 역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궁극적 사랑의 행업이다. 부활의 대상은 영혼만이 아니라 온 인격체이다. 인간 존재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되살아난다. ‘육신 부활’ 이란 육신까지도 포함하여 인간의 전 존재가 하느님에 의해 변형되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감을 뜻한다. 부활은 지금 지닌 몸 그대로 되살아나는 소생이 아니다. 과육으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육신을 통해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선행을 행한다. 선행과 희생은 육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온전한 교류와 나눔은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육체와 더불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돕고 사랑하며 성장한다. 육신이 최종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육신 부활은 지상에서 육신으로써 쌓은 가치들 그리고 부당하게 겪은 육신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 따위가 하나도 상실되지 않고 하느님에 의해 회복되어 후한 보상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지녀 하늘나라에 동참함을 뜻한다. “너희가 목마르고 굶주리는 형제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었다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31-40)

[2009년 6월 7일 삼위일체 대축일 가톨릭마산 8면]

예비자 교리

2월반	주일	9:00 am (수녀님)
	목요일	8:00 pm (신부님)
6월반	주일	10:15 am
	목요일	8:00 pm

버스 운행 시간표

	리드کم 역 ⇨ 성당	성당 ⇨ 리드کم역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주일	오전 8시 20분, 8시 45분	오전 9시 미사 후
	오전 9시 50분, 10시 15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버스 봉사자

연령회 문의: 0433 067 456

차량 문의 : 0414 488 700

2호차 (리드کم) - 토요일 봉사	1호차 (캠시)	2호차 (캠시)	3호차 (이스트우드)	4호차(리드کم)
03:10pm 리드کم, 06:40pm 성당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출발	주일
07월12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7월19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7월26일: 최종문 아오스탕, 장기영 토마스 08월02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8월09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7월13일:황기봉라파엘라 07월20일: 정선주 마르코 07월27일: 양재봉 다니엘 08월03일:황기봉라파엘라 08월10일:황기봉라파엘라	07월13일: 이기철 알렉스 07월20일: 신영대 요셉 07월27일: 김영권베네딕토 08월03일: 정선주 마르코 08월10일: 이기철 알렉스	07월13일: 이세영 앤드류 07월20일: 최영수 율리오 07월27일: 이세영 앤드류 08월03일: 최영수 율리오 08월10일: 이세영 앤드류	07월13일:장병일엘리자오 07월20일:이승준에드워드 07월27일:장병일엘리자오 08월03일: 문석주 필립보 08월10일:장병일엘리자오